

서울대 경쟁률 8.84대 1, 반수생 몰린 듯... 고대는 12.92대 1

2024년도 수시모집 결과

서울대 5000명 더 몰려 지원율 ↑
고려대 선발인원 늘려 경쟁률 하락
경희대 6만8270명 몰려 22.9대 1

13일 마감한 서울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지난해보다 5000여명이 더 몰리며 8.8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고려대의 경우 모집 인원은 37명 늘어난 데 반해 지원 인원은 2580명 감소해 전체 경쟁률이 하락했다.

◆서울대 1만9279명 지원...‘과탐 II 지정 폐지해 지역균형전형 증가’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2181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하는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1만9279명이 지원해 8.84대 1로 지원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서울대 수시 지원자는 1만4108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5171명 더 많은 수험생이 원서를 냈다.

세부 전형별로 보면,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은 4.97대 1(전년도 3.93대 1), 일반전형은 10.07대 1(전년도 8.12대 1)로 두 전형 모두 지원율이 크게 상승했다.

인문계의 경우 ▲윤리교육과(6.33대 1) ▲소비자학부(5.83대 1) ▲인문계열(4.81대 1) 순이었다



〈서울 일부 대학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학교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2024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경희대	2,910	66,636	22.9 : 1	2,896	68,270	23.57 : 1
고려대	2,533	35,695	14.09 : 1	2,593	33,501	12.92 : 1
서울대	2,056	14,108	6.86 : 1	2,181	19,279	8.84 : 1

/자료=각 대학 사이트 내 발표, 정원 외 포함 기준, 가나다순

고, 자연계열은 ▲생명과학부(11.86대 1) ▲응용생물화학부(11.44대 1) ▲약학계열(9.64대 1) ▲의예과(8.03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모집단위는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전형의 경우 신설된 첨단융합학부(98명 모집)의 지원율이 10.96대 1로 나타나, 기존 공과대학모집단위들보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인문계열은 ▲철학과(20.78대 1) ▲사회학과(17.30대 1) ▲소비자학전공(17.14대 1)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자연계는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16.00대 1)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의예과(15.64대 1) ▲식품·동물생명공학부(15.56대 1) ▲응용생물화학부(14.07대 1) 순이었다.

임성호 총로학원 대표는 “서울대는

올해부터 과탐 II 지정을 폐지해 고3의 지역균형전형 지원 수가 증가했고, 수시 수능최저충족 가능성도 확대돼 최상위권 학생들이 더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생이 큰폭 증가한 상황에서 주요 상위권대에 재학생인 반수생 중 내신이 우수한 반수생 상당수가 서울대 수시에 지원한 것”이라며 “고난도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고득점 확보에 자신을 가진 고3 수험생도 대거 서울대 수시에 소신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교추천-학업우수’ 중복 불가 ‘고려대’, 경쟁률 ↓...경희대, 전년과 비슷
고려대는 서울대와 달리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크게 하락했다. 고려대는 올해 전년 대비 수시 선발인원을 60명 늘려 2593명을 선발하지만, 지원자 수는

2194명 줄어 3만3501명이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지난해 14.09대 1보다 낮은 12.92대 1의 경쟁률(정원 외 포함)을 나타냈다.

전형별로 보면, ▲학교추천전형 10.31대 1(전년도 11.32대 1) ▲학업우수자전형 15.07대 1(전년도 17.09대 1) ▲계열적합전형 13.09대 1(전년도 15.18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경쟁률 하락에도 전년도 입시결과가 낮았던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지원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학과별로 보면, 학교추천의 경우 인문계열 ▲보건정책관리학부(14.38대 1) ▲언어학과(13.20대 1) ▲불어불문학과(12.29대 1) ▲통계학과(12.33대 1)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고, 자연계열은 ▲간호대학(26.50대 1) ▲의과대학(23.44대 1) ▲환경생태공학부

(23.25대 1) ▲산업경영공학부(21.00대 1)의 경쟁률이 높았다.

이투스 “고려대는 올해 수시에서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져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모집 인원 감소 규모가 컸던 학교추천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지원자들의 지원 추세가 둔화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대학이 15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와 함께 13일 마감한 경희대는 2896명 선발에서 6만8270명이 지원해 23.57대 1의 경쟁률(정원 외 포함)을 보였다. 전년도 22.90대 1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서울캠퍼스는 논술우수자전형 경쟁률이 95.62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오르네상스전형(20.38대 1), 지역균형전형(6.97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경희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의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경쟁 대학들에 비해 원서접수를 일찍 마감한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I 양재허브에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

서울시-산업융합사업단-서울대 인공지능 활성화 거점 조성 등 협력

서울시가 ‘AI(인공지능) 양재 허브’에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AI 양재 허브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서울대 AI 연구원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스타트업과 산학연의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거점 조성 ▲AI 관련 신규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공동 수행 체계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양재 허브는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프라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는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



AI 양재 허브 합종민 센터장(왼쪽부터),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 장병탁 교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김준하 단장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은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I 양재 허브는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이다. 시는 현 양재동 양곡도

매시장 부지에 인공지능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이 양재 일대로 모여드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세훈, 도시경쟁력 강화 구상... 북미 출장

서울시, 6박8일 일정 내일 출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도시경쟁력 강화 구상을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북미 출장을 간다고 14일 밝혔다.

9월 16~17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캐나다 최대의 상업도시 토론토에 머물며 스포츠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예정이다.

이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오전 11시 배터리파크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 송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오후에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과 경제·사회·문화·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내용으로 친선 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19일 오전 9시 30분에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폭염·폭우·가뭄 등 범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도심 개발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20일에는 인근 건물 공중권을 양도받아 고밀 개발한 ‘원 밴더빌트’와 업무·주거·상업시설로 복합개발 중인 ‘포터 소리티 터미널’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로 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오전에는 뉴욕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Seoul Investors Forum in NY(서울 투자가 포럼)’에서 ‘금융·기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을 알린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도내 생활체육인 3일간 열전

오늘부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고양시는 경기도 최대 생활스포츠 축제인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해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고양시 전역의 40여 개소 경기장에서 총 25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시는 2008년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이래 무려 15년 만에 다시 본 대회를 준비하는 만큼,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화합을 이루는 힘 경기’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했다.

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희망의 소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고양예고의 대회 성공 기원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고양시태권도시범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선수단의 선서 이후 수준급의 주제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하이라이트로 드론아트쇼와 오마이걸, 이찬원, 장윤정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가 총출동하는 축하공연 무대가 고양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송실대, 대학혁신지원 평가서 ‘AA등급’

송실대학교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1차 년도(2022년) 연차평가 결과, AA등급(교육혁신 전략 ‘A’, 자체 성과관리 ‘A’)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을 돕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총 11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연차평가에서 기존 평가 지표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자체 성과관리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의 3개 영역을 평가했다.

송실대는 교육혁신 전략목표를 ‘LEAP: 교육혁신을 통한 자기 주도 성장

형 창의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2대 추진체계를 수립했다. ▲경계를 뛰어넘는 전공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적 맞춤형 전공·융합교육 확대 ▲효율적인 대학자원 활용체계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학혁신 계획이도전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범식 총장은 “학생의 전공선택 및 진로지원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며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해 학사운영 및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 하는 등 학생과 대학이 함께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